

한솔페이퍼텍,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온 힘’

담양 남부마을 어르신 대상 온열질환 예방교육·예방물품 전달
취약계층 후원·환경 정화·농산물 구매도...“안전한 사회 조성”

한솔페이퍼텍이 기록적인 폭염에 취약한 공장 인근 고령층의 건강을 살피며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솔그룹 계열 출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대전면 남부마을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솔페이퍼텍의 보건대행기관인 한길산업보건연구소 소속 전문강사가 맡았다. 강사는 폭염 시 행동요령과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 응급조치 방법,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수칙 등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한솔페이퍼텍은 교육과 함께 쿨타월과 냉스카

프 등으로 구성된 폭염 예방키트와 휴대용 선풍기를 전달했다. 과일과 음료 등 다과도 마련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전문기관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폭염 대응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사업장 인근 마을의 인구 특성과 계절적 위험을 고려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물품을 함께 제공하며 사회공헌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담양군 대전면에서 40여년간 제지산업을 이끌어온 한솔페이퍼텍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공장 인근 하천과 전통시장, 마을 골목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1사1하천 가꾸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와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담양에서 생산된 쌀 1만kg을 구매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는 한편 담양군과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했다. 지역 청소년과 취약계층 후원, 겨울철 맞춤형 나눔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상생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주최한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환경사랑공헌 부문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돈은 남부마을 노인회장은 “최근 온열질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았는데,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령층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솔그룹 계열 출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대전면 남부마을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최근 트로트 가수 김다현(가운데)을 광양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청

트로트 가수 김다현, 광양시 홍보대사 위촉

박성현 시장 “산뜻한 이미지 갖춘 아티스트”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김다현 가수의 조부가 광양시 진월면 중도마을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9년 그룹 ‘청학동 국악자매’로 가요계에 데뷔한 이후 2020년 MBN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트롯’ 준우승을 하고 싱글 타이틀곡 ‘꽃처녀’를 발표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어 2021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 3위를 차지했으며 2024년 MBN‘현역가왕’ TOP 3, ‘한일가왕전’ MVP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김다현 홍보대사는 “평소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광양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광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맛, 문화, 관광은 물론 시민들의 따뜻한 정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양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시장은 “김다현씨는 뛰어난 실력과 대중적인 인지도와 더불어 건강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갖춘 아티스트로 많은 국민 사랑을 받고 있다”며 “광양과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광양시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국에 광양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내일 광주송정역서 폭염대응 캠페인

21개 민·관 유관기관과 합동...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사진)는 14일 오전 광주송정역 광장 및 지하철 역사(B1F)에서 지역 21개 민·관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대응 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주·전남의 대표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현장 근로자들에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교통공사가 폭염으로부터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의료기관, 민간기업,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펼쳐 예정이다. 참여기관들은 광주송정역을 찾은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를 집중 홍보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각 기관이 준비한 생수와 이온음료(포카리스웨트 990개), 자외선차단제(1000개), 쿨패치(1000개) 등 폭염 예방물품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커피차(500잔)도 운영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동명병원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시민과 근로자들은 간이 건강검진 및 맞춤형 전문 보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문화 체험존’도 마련한다. 시민들이 VR(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의 근로자가 되어 밀폐공간 사고와 근골격계질환 등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다트 게임과 QR코드를 활용한 참여형 안전학습 공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전KPS 여수사업처, 아동·청소년 안경 지원에 1000만원 기탁

동그라미 속 Eye행복사업

100명에 안경교환권 후원

전남광주특별자치 여수시는 12일 한전KPS(주) 여수사업처(처장 정영훈)가 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시력 보호를 위해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과 정영훈 한전KPS 여수사업처장,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100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맞춤형 안경교환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사업 수행기관인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은 대상자를 모집·선정해 안경교환권을 배부하고, 대상자는 희망하는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뒤 개인별 시력에 맞는 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 정영훈 한전KPS 여수사업처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시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12일 한전KPS(주) 여수사업처가 여수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시력 보호를 위해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자치 여수시청

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학 시장은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해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한전KPS(주) 여수사업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지원이 아이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학습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전KPS 여수사업처는 2021년부터 지역 아동·청소년 안경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600명에게 6000만원 상당의 안경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송원근 기자 swg33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12일 광산구 분량동에서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조명1호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광주특별자치시 농기센터, 최고품질 쌀 재배 현장평가

농협·참여농가와 함께 광산구 분량동서 생육상황·재배기술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센터는 12일 광산구 분량동에서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조명1호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평가회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광주통합RPC, 분량농협, 삼도농협,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가,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조명1호 재배포장을 둘러보며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또 품종 특성과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수확·품질 관리 및 브랜드쌀 생산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광산구 삼도·분량지역에 50ha 규모의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조명1호 30.8ha(17농가), 영호진미 19.2ha(10농가)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광주통합RPC, 분량농협, 삼도농협이 생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벼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토양검정, 적량 파종, 적기 이앙, 물관리, 비료관리, 병해충 예방·방제 등 생육 전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기술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조명1호의 생육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의견을 내

냈다. 이날 현장평가와 이달말부터 수확하는 벼를 센터 농업환경종합분석실에서 엄격하게 품질검사해 광주특별자치 최고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쌀만 선별, 공동브랜드로 출시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고품질 쌀 브랜드명 및 포장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중이며, 9월부터 햅쌀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영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은 “현장평가회는 조명1호의 우수한 생육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생산-품질-유통 전 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광주특별자치 쌀을 대표하는 최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